

'91 건협 정기대의원총회

14대 회장에 崔振學박사 재선

부회장에 林漢鍾(유), 金相仁(신)씨 선출
사무총장에는 全武根씨



최진학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제 14대 회장에 崔振學 박사가 선출되었다.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1시, 서교호텔에서 있었던 건강관리협회 정기대의원총

회에서는, '91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강사 제외)을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고령자인 심운택

대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뽑은 다음 5명의 전형위원을 선출, 崔振學 회장 및 林漢鍾 부회장, 金相仁 부회장 등을 새 임원으로 추천했다. 추천된 임원들은 다시 총회에서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또한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임기 3년의 새 사무총장에 全武根씨를 선출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林漢鍾 부회장 (유)



金相仁 부회장 (신)



金三壽 이사 (신)



陳東植 이사 (신)



高永喜 이사 (유)



高應麟 이사 (유)



金恩雨 이사 (유)



閔獻基 이사 (유)



沈雲澤 이사 (유)



安商王 이사 (유)



李承徽 이사 (유)



洪彰義 이사 (유)



全武根 사무총장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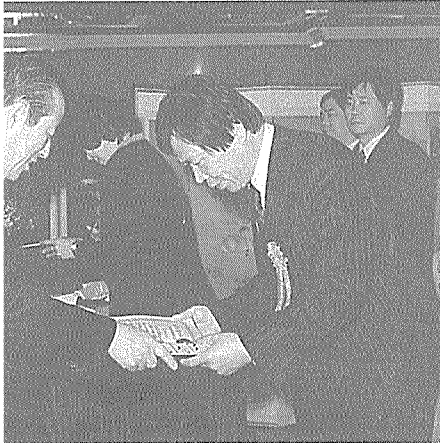
건협, '92년 총 예산 152억여원

'91 대의원 총회서 통과

'91 대의원총회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 규모를 152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92년도 건강관리사업목표 3백14만3천여명, 기생충관리사업목표 7백11만8천여명 등을 심의 통과시키는 등 '9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본회 사업발전에 공이 큰 우수직원에 대한 보사부장관 표창 및 유관단체인사에 대한 회장 감사장 수여도 있었다.



관단체인사에 대한 최진학 회장의 감사장 수여

건협,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

폐품수집, 성금모금, 결연사업 등 추진

건강관리협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즉, 직원들이 지난 12월 봉급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어 놓았으며, 폐휴지를 수집·판매한 대금을 불우이웃을 위해 적립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부 내원자 상담실에 성금

모금함을 설치해 불우이웃돕기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 등과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매월 성금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건협은 이러한 불우이웃돕기가 연말연시에 잠깐 하고 마는 형식적 행사가 되지 않도록, 연중 계속해서 전개키로 결의하여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